

경남 마산지역 승강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朴文洙·이하 승관원)은 지난 19~20일 양일간 태풍 피해가 심해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남 마산시 두산3차아파트와 삼천포 서성파라토피아, 남영피치빌 등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 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원 진단팀과 승관원 경남지원 검사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실시된 이번 수해지역 승강기 안전점검은 ▲절연저항 측정 ▲승강기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점검 ▲소음 진동상태 측정 ▲승강기 하중 시험 ▲건조장치를 이용한 물기 제거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마산시 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두산아파트와 일부 건물의 경우 태풍으로 지하 기계실이 침수돼 전기·수도물 공급,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9월 20일 현재 경남지역 일대의 태풍피해 승강기는 마산시가 가장 많은 46대를 비롯해 창원 29대, 김해 20대, 진주 22대, 사천 12대, 통영 5, 밀양 3대, 창원군 4대, 하동 1대, 남해 2대, 함안 1대 등 총 145대

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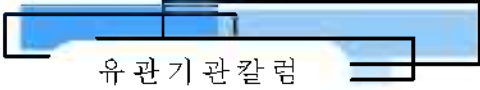
마산지역 승강기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임창수 승관원 경남지원장은 “이곳 피해 승강기 대부분은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승강로와 기계실에 빗물이 유입돼 발생했다” 면서 “승강기 안전장치 확인, 전선 피복과 연결부위에 잔존하는 물기를 제거해 승강기 오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사고나 운행정지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마산시 피해지역 아파트의 한 주민은 “태풍 피해를 입고 나니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공급과 승강기 운행이었다” 면서 “특히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이동하는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전국 773대의 승강기가 물에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 참고자료

- 전국 승강기 태풍피해 현황



유관기관칼럼

제14호 태풍 「매미」 관련 승강기 수해 현황

(단위 : 대)

소속기관명	지역명	승강기대수	피해정도	비고
계		773	경미:588,중대:185	
부산지역본부	소계	32	중대:32	미정
	부산시	31		
	기장군	1		
대구경북지원	소계	79	경미:79	9.20
	대구시	57		
	경북	22		
경남지원	소계	145	중대:145	미정
	마산시	46		
	창원시	29		
	진주시	22		
	사천시	12		
	김해시	20		
	통영시	5		
	밀양시	3		
	창녕군	4		
	하동군	1		
	남해군	2		
	함안군	1		
울산지원	소계	13	경미:13	9.18
	양산시	1		
	울산시	12		
광주전남지역본부	소계	310	경미:307, 중대:3	9.17
	순천시	30	경미:30	
	여수시	246	경미:243, 중대:3	
	광양시	34	경미:34	
제주지원	소계	180	경미:180	9.17
	제주시	146		
	서귀포시	23		
	북제주군	6		
	남제주군	5		
강원지원	소계	14	경미:9, 중대:5	9.17
	강릉시	3	경미:2, 중대:1	
	삼척시	6	경미:3, 중대:3	
	동해시	1	중대: 1	
	평창군	4	경미: 4	

※ 경미 : 즉시 완료 조치된 곳 또는 금주(9.20)까지 조치완료 예정인 곳을 말함.
 중대 : 조치완료계획이 미정인 곳을 말함.

